

홈 > 뉴스 > 에너지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E소비효율 등급기준 대폭 상향

2010년 07월 08일 (목) 09:05:53

박기진 기자 ✉ kjpark@epnews.co.kr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6일 에관공 별관 1층에서 가전기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1년간의 연구 용역과 각 품목별 업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사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업체관계자의 높은 관심속에서 효율기준 강화 및 측정개선 방법 등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은 가전기기의 효율기준 상향 조정, 가스온수기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규지정, 백열전구 퇴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먼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가스온수기의 신규품목 지정과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수준이 향상돼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7~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과 측정방법을 개선했다.

또한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하고 열 발산 비중이 95%에 이르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생산·판매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할 예정이다.



▲ 에관공은 지난 6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향조정 및 신규품목 지정을 위한 효율기자재운용규정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